

>> 1면 '현대차, 엔비디아...'서 계속

## 과감한 투자·인재 영입 미래 모빌리티 기업 전환

현대차그룹은 차량 생애주기 동안 고객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최신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향후 출시 예정인 차량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클러스터, 헤드업디스플레이(HUD)를 통합한 커넥티드카 정보 표시 시스템인 '디지털 통합 콕핏'을 적용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협력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행 중 탑승자의 안전·편의 관련 정보를 생생한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전자 담당 추교용 전무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현대·기아차를 선택한 모든 고객에게 혁신적인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커넥티드카에서 필수적인 효율적인 전력 관리 기능과 뛰어난 확장성을 뒷받침하는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로보틱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매각도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매각 거래는 최대 10억달러(약 1조 1350억원) 규모다. 로봇 개 '스팟'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분사해 설립됐으며 2013년 구글에 인수됐다가 2017년 7월 소프트뱅크에 팔렸다.

2015년 처음 선보인 '스팟'은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 발로 초당 1.58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방수 기능도 갖췄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현대차그룹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이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을 맡은 2년여 기간 동안 그룹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재편에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와 제휴, 적극적인 인재 영입 등을 통해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삶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핵심 성장축인 자율주행, 전동화, 수소연료전지 분야와 함께,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매각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언제나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양성은 기자 ysw@

# 금융기관 역할 그 이상... 韓뉴딜 로드맵 '동행'

뉴메트로 5주년 기업과 함께 한 5년, 함께 할 50년

## 3부. 디지털 뉴딜

### 4 우리금융

우리금융그룹은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회사별 사업 연관성을 분석한 뒤 투자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기회로 삼겠다는 판단에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9월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로드맵인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신성장 동력도 발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등 주요 사업별로 마련한 지원책을 조기 착수 가능한 사업부터 빠르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우리금융은 한국판 뉴딜 사업 금융 지원 계획으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디지털 뉴딜'에 4조 2000억원, '그린 뉴딜'에 4조 7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1조 1000억원 등 총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오는 2022년까지 혁신금융 지원으로 19조 9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디지털

2025년까지 5년간 10조 투입  
데이터 신사업·디지털 전환 추진  
뉴딜펀드 투자 규모 점진적 확대  
"사업별 韓뉴딜 지원책 조기착수"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등 사업여건이 빠르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돼 데이터 신사업을 본격 추진과 그룹 사업 전반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언택트(비대면) 트렌드 대응을 위해 정책자금 활용, 보증기관 출연 등을 통해 맞춤형 여신지원 확대도 진행한다. 이들의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우리카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몰 '위바마켓' 입점 지원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경쟁 분석을 제공하는 등 비금융 부문의 지원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지난 4일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 육성기업 중 하나인 캐시노트와 우리은행이 협업해 소상공인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린 뉴딜' 분야로는 태양광, 해상풍력발전 투자에 오랜 경험을 보유한 기업투자금융(CIB)부문을 중심으로 친환경, 녹색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우리금융은 태양광, 해상풍력발전 부문 금융주선 주도뿐 아니라,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클린 에너지센터 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주요 그룹사 디지털·IT 부문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디지털혁신 조직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가운데) 회장이 레드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고 있다. 특히 뉴딜 투자펀드에도 그룹 혁신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착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관 정기예금 판매, 대출금리 우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전망 강화 뉴딜' 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 ◆"디지털 혁신은 생존의 문제"

우리금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퍼스트' 모던걸 바꾸자(Digital First, Change Everything)를 내걸면서 디지털 혁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총괄하는 '그룹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또한 손 회장이 대내외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디지털 혁신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혁신의 일상화'를 이끌겠다

고 공언한 것이다.

특히 우리금융은 지난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금융남산타워를 '우리금융디지털타워'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디지털 헤드쿼터로 변모시켰다.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 우리금융지주 디지털·IT부문과 우리FIS 디지털 개발본부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손 회장의 디지털 집무실까지 꾸렸다. 그룹 시간 동반 기획은 물론, 기획에서 개발로 이어지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책임자급 직원을 중심으로 한 '블루팀(Blue Team)'을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의견 청취 ▲그룹사 디지털부문 실무 담당자로 구성된 회장 직속 조직 '레드팀(Red Team)' ▲디지털 마케팅·채널 총괄 조직 'DT추진 애자일 코어팀' 등을 통해 디지털금융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코로나 고개서도 적자 축소 선방... 면세점 '빅3' 바짝



3분기 매출 2554억·영업손실 118억  
소비자 브랜드 습관·평판 평가 4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자폭을 축소하며 면세점 빅3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 전년 같은 달보다 36.4% 감소한 이후 9월에도 34.9% 줄었다. 면세점 매출이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10년 이래 역대 최장이다. 면세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소중견 면세사업자가 사업권을 내려 놓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백화점은 올 3분기 연결기준으로 백화점과 면세점을 합친 매출액 6623억원과 영업이익 4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4.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6.5% 감소한 수치다. 3분기 백화점 부문은 매출액 4305억원에 영업이익 56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매출은 6.0% 줄었고, 영업이익은 27.4% 감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외관

/현대백화점

소했다.

반면 면세점부분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부문은 매출액 2554억원과 영업손실 1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매출은 158.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억원 개선된 수치다.

현대백화점의 최근 2년간 면세점 부문 손익을 살펴보면, 올 3분기 적자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171억원 손실과 대비해 31% 줄었으며, 전 분기 181억 손실보다는 34.8% 감소했다.

3분기 호실적에 4분기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2018년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 이후 올 2월

동대문점을 열었으며, 지난 9월에는 인천공항점을 오픈했다. 현재 총 3개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올 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 경쟁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고급 브랜드를 유치하고 바잉 파워를 확보해 상품 구색을 강화하면, 시장 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개선은 시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면세점시장 수요가 정상화되면 실적 개선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서 6일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장을 황해연 대표에서 이재실 대표로 교체했다. 이 대표는 현대백화점에서 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상무)과 무역·관교점장을 역임했다. MD 역량을 갖춘 이 대표를 앞세워 면세점 부문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면세점 브랜드평판에서 4위를 차지하며 빅3와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한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4위를 차지했다. 브랜드평판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 사회적 공헌도로 측정 된다.

참여지수 5460 미디어지수 26만 9304소통지수 9만 5325커뮤니티지수 21만 4463사회공헌지수 8만 666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7만 1218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40만 2496과 비교하면 66.76% 상승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ost documents named Kang Young II  
Date: May 31, 2018.  
Location: Seongdong tax office  
Content: At around 6pm on May 31 at the Seongdong tax office,  
I lost a set of documents, which is the Sales Contract No. SH-3108/2018 of the Sunwah Pearl project at: 90 Nguyen Huu Canh, Ward 22, Binh Thanh District, named Kang Young II, passport number: M44249023.  
Please contact me if you saw it or found it. I would really appreciate that.  
Contact information : Kang Young II,  
Phone: 010-3163-7743